



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팬들이 20년 이상 만의 첫 버펄로 빌스 홈 플레이 오프 게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계획을 발표

제안된 계획에 따라 6,700명의 팬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어

입장은 음성 검사 결과, 추적을 위한 접촉 추적을 통해 허가되며, 뉴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조치를 요구

테일게이팅은 금지 상태를 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엄격한 코로나19 프로토콜에 따라 20년 이상 만에 버펄로 빌스(Buffalo Bills)의 첫 홈 플레이오프 게임에 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빌스와 뉴욕주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제안 아래, 참가한 팬들은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접촉 추적 또한 게임 후에 수행됩니다. 시행될 경우, 이 계획은 뉴욕 전역의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재개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버펄로 빌스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20년 이상 기다린 첫 홈 플레이오프 게임이 몇 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한된 수의 팬들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안에 따라 모든 팬들이 입장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을 요구하는 국내 최초의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이것은 또한 주 전역의 다른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재개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빌스의 팬들은 홈 플레이 오프 게임을 수십 년을 기다렸으며, 어려웠던 한 해를 겪은 그들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 직접 자신의 팀을 응원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빌스의 승리를 위하여!"

빌스가 주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팀 직원은 경기장의 모든 출구 및 진입 지점을 관리하고 문서화된 음성 코로나19 검사를 소지한 팬 만 내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전의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신속 검사 자원의 배포를 촉진할 것입니다. 시행된 경우 검사 및 접촉 추적을 요구하는 국내 최초의 경기장 재개 계획이 될 것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팬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팬들은 빌스의 보안 요원에 의해 경기장에서 퇴장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팬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전체에 안내원이 배치됩니다. 주정부 검토의 일환으로 보건부 직원들은 유사한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뉴욕 외부의 다른 경기장을 방문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테일게이팅(Tailgating)은 이 계획에 따라 계속 금지되며, 이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게임 전, 도중 및 이후의 모임과 파티를 피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